

광주 수도권발 확진자 속출... 전남 하룻만에 8명 추가

코로나 전국 700명대 확산...정부 상황 지켜본 뒤 거리두기 격상 검토

광주에서 코로나19 타지역 확진자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선 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등으로부터 감염된 사례 등 하루 새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는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5명에 이어 이날 2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신규 확진자는 2254명이었다. 신규 확진자 7명 가운데 5명은 모두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확진된 사례다. 나머지 2명은 감염원인을 파악 중이다.

가족 모임을 했다가 일가족 6명이 확진된 송파구 확진자와 관련해 이 가족의 지인 1명이 확진됐고, 송파구 확진자가 방문한 광주의 한 식당에서 동선이 겹친 1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로써 송파구 확진자와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2명은 안양에 거주하는 가족의 집에 방문했거나 손님으로 찾아온 용산구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선 14일 하루 동안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남 확진자는 987명이 됐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순천 4명, 함평 2명, 담양 1명, 해남 1명이다.

함평서 나온 전남 983, 984번 확진자는 서울 사는 자녀(관악구 1641번) 접촉 과정에서 감염됐고, 해남서 나온 전남 985번 확진자는 수원 사는 여동생(수원2017번)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서 나온 전남 986번 확진자는 앞서 확진된 배우자(전남 980번)로부터 감염됐다. 전남 987번 확진자는 앞서 확진된 순천 택시기사(전남 947번)가 몰았던 택시 승객으로 조사됐다.

전국 상황은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로 급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 누적 11만1419명이라고 밝혔다. 전남(542명)보다 189명이나 늘면서

600명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700명대로 올라섰다. 700명대 확진자는 지난 8일(700명) 이후 7일(869명) 이후 약 3개월, 정확히는 97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714명, 해외유입이 17명이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의 여파가 미처 가라앉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4차 유행'의 초기 단계로 접어든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필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단계 조정을 하는 데 큰 요소"라면서 "금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거리두기 조정이나 방역조치 즉,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강화 부분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700명대로 늘어난 14일 오후 광주 서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한국 출산율 1.1명...2년 연속 전세계 꼴찌

유엔인구기금 2021년 인구 보고서, 14세 이하 비율도 최하위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또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어린이 인구가 줄어들어 꼴찌로 추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 인구 비율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14일(현지시간)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My Body Is My Own)에 실린 통계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198위에 그쳤다.

2019년 1.3명으로 192위였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꼴찌로 떨어진 뒤 2년 내리 최하위에 머물렀다. 올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고인 니제르(6.6명)의 6분의 1 수준으로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체 인구에서 0~14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이 12.3%로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이 일본, 싱가포르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인구

비율은 세계 1위인 니제르(49.5%)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세계 평균(25.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성장 속도는 둔화하는 모습이다. 2015~2020년 한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2%로 세계 인구성장률 1.1%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6%로 지난해 15.8%에서 0.8%포인트 증가했다. 세계 평균 9.6%를 훌쩍 넘어 전체 198개국 중 42번째로 높았다. 이 부문 1위는 일본(28.7%)이고 이탈리아(23.6%)와 포르투갈(23.1%)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여성 86세, 남성 80세로 각각 4위, 19위에 올랐다. 세계 평균은 여성 75세, 남성 71세다.

올해 전 세계 총인구 수는 78억7500만명으로 작년보다 8000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14억4420만명)과 인도(13억9340만명)가 1, 2위를 다툰 가운데 미국(3억3290만명)이 세 번째로 많았다.

한국은 5130만명으로 작년과 같은 28위였다. /연합뉴스

'명품 천일염' 영광·신안서 올해 첫 생산

태양과 바람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 불리는 천일염의 전국 최대 생산지인 영광과 신안에서 올해 첫 생산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천일염 산업 성장을 위해 1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일염 주산지인 전남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천일염을 생산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천일염 연간 생산량은 17만6000t으로 이 가운데 93%인 16만4000t이 전남에서 생산됐다. 생산액도 전국 457억원의 93%인 425억원을 차지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이 바람과 햇빛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다. 전남은 천일염밭이 많고, 밀물과 썰물의 조수 간만의 차가 커 품질 좋은 천일염 생산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전남산 천일염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건강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다. 세계적인

로 유명한 프랑스 계량도 천일염보다 미네랄이 두 배 이상 많이 함유됐다는 사실도 학계에 보고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천일염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천일염 생산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제염기, 전동대파기 등을 보급해 생산시설 자동화 기반을 조성한다. 또 천일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천일염 임시저장장과 장기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등 올해 11개 사업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이영조 전남도 수산유통과공과장은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고품질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기반을 계속 정비하겠다"며 "전남산 명품 천일염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희귀 혈전증' 美 안센 백신 접종 중단...국내 공급 차질 우려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도 불투명

미국 보건당국이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존슨앤드존슨(J&J)의 안센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하면서 국내 백신 도입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일단 안센 백신 600만명분 도입 계획에는 아직 변동이 없고, 또 미국 내 공급량 확대에 인한 모더나 백신의 국내 지원 도차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백영하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총괄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안센 백신의 미국 내 접종 중단과 관련해 국내 도입 계획은 아직 변경되지 않

은 상태"라며 "질병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품(FDA)은 전날(현지시간) 안센 백신 접종자 6명에 걸쳐 '드물지만 심각한'(rare and severe) 형태의 혈전증이 나타났다면서 안센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했다. CDC는 14일 백신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긴급회의를 소집해 안센 백신의 안전성을 재검토할 예정으로, 긴급사용 승인을 철회하거나 특정 인구 집단으로 승인 대상을 제한할 경우 국내 접종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센 백신은 앞서 이달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수입이나 접종은 이뤄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한국안센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의 혈전 이상 사례 정보를 요청한 동시에 국내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센 백신과 별개로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2분기부터 총 2000만명분의 모더나 백신을 공급받기로 돼 있는데 실제로 언제 받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월 말까지 미국 정부에 백신 1억회분(5000만명분)을 공급하고, 7월 말까지 추가로 1억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방막 준주거, 담양방막 주거2종

-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재배 적합 농가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유폴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대지급매

위치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면적 2,816㎡(851평)

금액 71억 (5월1일 이후 85억)

4월 30일까지만 추진합니다

문의 010-6432-5070

대인동 싼 땅

- ▶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

수기동 제일OP

- ▶ 20층 중 8층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매매 - 1억1000만원
- ▶ 20층 중 20층
- 계약 252㎡, 전용면적 142㎡
- 매매 - 3억3천만원
- ※ 사무실 전용, 코너, 주차 편리

문의. 010-3605-5000